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이재명

50.29%...과반 '턱걸이' 본선 직행
이낙연측 '표계산 방식' 이의 제기
후유증...향후 원팀구성 약재될 듯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대장동 정국' 속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지역 순회 경선에서 전체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한 이 지사를 대선후보로 선출했다.

▶관련기사 3·4면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지역 경선에서는 51.45%를 득표, 2위인 이낙연 전 대표(36.5%)를 이기면서 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24만8천여명이 참여한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이 전 대표가 62.37%를 차지, 이 후보(28.3%)를 크게 압도했다.

광주·전남을 제외한 전 투표에서 과반 압승을 하면서 민주당 경선 내내 대세를 유지했던 이 후보가 막바지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대패한 것은 대장동 리스크 등에 따른 불안감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이 지사가 '턱걸이 과반'을 한 것을 놓고 당장 이낙연 지지층에서는 당 지도부가 표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이란 반발이 나오고 있어 향후 민주당의 원팀 구성 등에서도 약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잘못된 무효표 처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무효표를 유효화할 경우)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로 과반에 미달해 결선투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충원 참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첫 공식 행보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이날 현충원에는 송영길 대표, 윤석재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도 함께 동행했다. /연합뉴스

그는 무효표 적용과 관련한 특별당규 조항을 들어 "9월 13일(정세균 후보 사퇴일) 이전에 정 후보에게 투표한 2만3천731표와 9월 27일(김두관 후보 사퇴일) 이전에 김 후보에게 투표한 4천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투표"라고 주장했다.

중도 하차한 정·김 후보가 얻은 득표율 '유효투표'로 계산할 경우 이 지사는 과반 득표에 실패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전 대표와 결선투표를 실시해야만 한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당헌·당규상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으며 이 전 대표 측 이의제기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것처럼 대한민국 집권여당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운영된다"며 "우리 당은 어제 이재명 후보를 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 발표했고, 제가 추천서를 전달했다"고 말해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이 당헌당규는 제가 당 대표일 때 만든 것이 아니고, 이해찬 전 대

표 때 만들어져서 지난해 8월 이낙연 전 대표를 선출하던 전당대회 때 통과된 특별당규"라며 "이 전 대표를 선출하면서 같이 전 당원 투표에 의해 통과된 특별당규에 근거해 대통령선거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11일 대전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대장동'과 관련한 야당의 정치공세를 막기 위해 경기도지사직을 국정감사(18일·20일) 전에 사퇴하는 문제도 이번 주 내에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수기자

제2회 광주매일신문 축제관광대상 공모

11월19일 마감...종합대상 등 수상자 표창·상금 수여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는 축제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2회 광주매일신문 축제관광대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축제관광대상 시상식은 지역 축제와 관광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기업, 관련분야 전문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업계 종사자 등을 격려하고, 이들의 성과를 통해 지역 축제관광산업의 지속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축제와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되었지만 참신한 아이디어 등으로 주목을 받은 단체나 기관, 활동가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 시상은 ▲종합대상 ▲콘텐츠부문 ▲MICE부문 ▲여행업 ▲숙박업 ▲운수업 ▲특별부문 등으로 세분화해 표창과 소정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 축제와 관광산업 발전에 열정을 갖고 헌신하고 있는 지자체 및 기관, 전문가, 기업, 관련분야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 ◇추치·주관: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
- ◇후 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광주관광재단, 전남관광재단, 세계축제협회한국지부, 광주광역시관광협회
- ◇접수 자격: 자치단체 및 기관, 기업체, 단체, 협회 등
- ◇접수 방법: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 ◇접수 마감: 2021년 11월19일
- ◇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기온 '뚝'...당분간 쌀쌀한 날씨 이어져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당분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1일 "광주·전남은 12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 10-40mm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5-19도, 낮 최고기온은 20-23도 분포를 보이겠다. 이는 전날 기온보다 2-3도 높은 기온이다.

이번 비는 이날 오후까지 내린 뒤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13일까지 북서쪽에서 유입된 차가운 공기로 쌀쌀한 날씨는 지속할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13일 아침 기온은 16-19도, 낮 기온은 24-27도로 예상된다. 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Today	
11번째 '천원밤상'... "돈줄내자"	7면
광주문인협회 문학대당	15면
고진영·임성재 동반 우승	16면

'한글날 연휴' 광주·전남 98명 확진...추가 확산 '촉각'

지난주 개천절 연휴비 36명 감소...경로당 집단감염 '비상'

광주와 전남 음식점 등에서 일상 속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다만 이번 한글날 연휴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개천절 때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한글날 연휴가 시작된 지난 8일부터 이날까

지 나온 간 광주(60명)와 전남(38명)에서 모두 9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개천절 연휴(1-4일) 당시 발생한 134명보다 36명 감소한 수치다. 일별로는 ▲8일 32명 ▲9일 28명 ▲10일 25명 ▲이날 오후 6시 기준 13명이다.

문제는 음식점 등 일상 속에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 북구의 한 식당에선 지난 7일 손님 1명이 확진된 이후 현재까지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첫 확진자는 지난 3일 경기 고양 확진자와 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이후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머문 이용자들이 전수 검사해 다수의 확진자가 나왔다.

앞서 지난 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광산구 소재 경로당 관련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다.

이들 모두 백신 접종 완료 후 확진된 돌파 감염 사례로 방역 당국은 백신 효능이 떨어져 집단 감염이 생긴 것으로 판단, 지역 경로당 실태를 점검하고 방역 수칙을 안내했다. ▶2면에 계속 /오승자·임후성기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내 마을은 내 손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사업내용 주민 참여 환경·경관 등 마을가꾸기 사업, 22개 시·군 **1,000개 마을** 선정

문의 전라남도청 자치행정과(061-286-3571)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으뜸마을 담당부서

사업지원 마을당 매년 **300만원씩 3년간 900만원** 지원